

의안 번호	3399
----------	------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2025. 12.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

I

특별위원회 구성

□ 구성 목적

-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는 외국인환자 유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서울 의료관광 산업의 현실과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구성 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1항 및 제2항

□ 추진 경위

- 2025. 6. 27.: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및 위원 선임
- 2025. 12. 27.: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 구성 현황

- 위원회명: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 활동기간: 2025. 6. 27. ~ 2025. 12. 27.
- 위원수: 15명

□ 위원 및 직원 명단

○ 위원 명단

- 위원장 :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 제4선거구)

- 부위원장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5. 9. 10. 기준)

구 분	성 명	선거구	소속 상임위	정 당
위원장	김 혜 영	광 진 4	문화체육관광	국 민 의 힘
부위원장	이 종 배	비 례	문화체육관광	국 민 의 힘
부위원장	아 이 수 르	비 례	문화체육관광	더불어민주당
위 원	고 광 민	서 초 3	주택 공간	국 민 의 힘
위 원	김 길 영	강 남 6	도시계획균형	국 민 의 힘
위 원	김 용 호	용 산 1	도시안전건설	국 민 의 힘
위 원	김 태 수	성 북 4	주택 공간	국 민 의 힘
위 원	김 형 재	강 남 2	문화체육관광	국 민 의 힘
위 원	옥 재 은	중 구 2	주택 공간	국 민 의 힘
위 원	이 상 육	비 례	도시계획균형	국 민 의 힘
위 원	이 종 환	강 북 1	문화체육관광	국 민 의 힘
위 원	황 철 규	성 동 4	교 육	국 민 의 힘
위 원	박 강 산	비 례	행정자치	더불어민주당
위 원	우 형 찬	양 천 3	교 육	더불어민주당
위 원	한 신	성 북 1	환경 수자원	더불어민주당

○ 직원 명단

('25. 9. 10. 기준)

연 번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1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기 4급	이준석	
2	"	전문위원	임기 5급	김성만	
3	"	의사지원팀장	행정 5급	안나현	
4	"	입법조사관	임기 6급	최범준	
5	"	입법조사관	임기 6급	신현두	
6	"	입법조사관	임기 6급	강민수	
7	"	주무관	행정 6급	김현종	
8	"	주무관	행정 7급	조혜진	
9	"	주무관	행정 7급	이상희	
10	"	주무관	관리운영 7급	정희숙	
11	"	입법조사관	임기 7급	이성찬	
12	"	입법조사관	행정 7급	김혜진	

II

특별위원회 활동경과

- 2025. 6. 30.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이후 서울시 의료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정책토론회 개최,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진행함.

차수	일시 및 장소	회의내용
1	2025. 7. 18.(금)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제1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선임: 김혜영 의원
2	2025. 9. 10.(수)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제2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위원장 선임: 이종배 · 아이수루 의원 ○ 관광체육국(관광재단 포함)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
현장 방문	2025. 9. 30.(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강남메디컬투어센터 류성형회과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의료관광 관련 정책 및 지원에 대한 업계의견 수렴을 위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등 방문 ○ 각 기관 현장시찰 및 의견 청취
현장 방문	2025. 10. 14.(화) 하이디하우스 서울한방진흥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의료관광 관련 정책 및 지원에 대한 업계의견 수렴을 위한 하이디하우스 및 서울한방진흥센터 방문 ○ 각 기관 현장시찰 및 의견 청취
정책 토론회	2025. 11. 5.(수)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서울시 의료관광, 무엇이 걸림돌인가?: 법, 제도 마련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 개최 ○ 지속가능한 서울시 의료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료관광 제도개선 과제 등의 발제와 관련 토론 진행
3	2025. 12. 22.(월)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제3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의안 의결 ○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 특별위원회 보도자료 배포 내역(붙임 1 참고)

연 번	배포일시	제 목
1	2025.7.21.(월)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위 위원장에 김혜영 의원 선임 등 공식 출범 - 김혜영 위원장, “서울시 의료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적극 모색”
2	2025.9.11.(목)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위 부위원장 선임·업무보고로 본격 활동 개시 - 부위원장에 이종배(국민의힘)·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 의원 선임 - 김혜영 위원장, 현장 방문을 통해 의료관광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
3	2025.10.16.(목)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위, 현장방문 통해 업계 애로사항 청취 - 김혜영 위원장,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추진할 것!
4	2025.11.10.(월)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장, ‘서울시 의료관광 무엇이 걸림돌인가?’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 서울 의료관광 성장 가로막는 광고·비자 규제 손질, 부가세 환급 연장, 불법 브로커 및 AI 허위광고 차단 방안 논의
5	2025. 12. 23.(화)	서울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건의안 의결 및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으로 6개월 활동 마무리 - 김혜영 위원장, “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서울 의료관광 발전의 토대 마련”

III

특별위원회 활동

□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

-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는 서울 의료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세 차례의 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위원회 활동을 진행함.
-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1차)
 - 일 시: 2025. 7. 18.(금) 11:00
 -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 안 건: 위원장 선임의 건

【 선임결과 】

구 분	위 원 명	정 당 명	지 역 구	상임위원회
위 원 장	김 혜 영	국민의힘	광진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부위원장은 2차 회의 시 선임

- 회의사진



○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2차)

- 일 시: 2025. 9. 10.(수) 11:00
-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 안 건: 부위원장 선임의 건, 소관기관 업무보고
- 주요내용
 - 부위원장으로 이종배 · 아이수루 위원 선임

【 선임결과 】

구 분	위 원 명	정 당 명	지 역 구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이 종 배	국민의힘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아 이 수 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특별위원회 관련 관광체육국(관광재단 포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진행
- 의료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역 지원, 숙박 인프라, 비자 제도, 홍보체계, 부서 간 협업 등 현안 개선 필요성 제기
- 의료관광 정책 추진 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중앙정부 대상 제도개선 촉구가 필요하며, 관련 자료 제출 및 후속 조치 마련을 요청
- 참석자: 특별위원회 위원 및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 회의사진



○ 현장 방문 추진(1차)

- 방문일자: 2025. 9. 30.(화)
- 방문장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국제진료센터, 강남메디컬투어센터, 뷰성형외과의원
- 참석위원
 - 김혜영 위원장
- 면담자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국제진료센터): 이상훈 국제진료센터장
 - 강남메디컬투어센터: 오경임 강남메디컬투어센터장
 - 뷰성형외과의원: 최순우 뷰성형외과의원 원장
- 주요내용
 - 서울시 의료관광 관련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업계 애로사항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국제진료센터, 강남메디컬투어센터, 뷰성형외과 의원을 방문하여 현장 시찰 및 정책간담회 진행
 - 외국인 환자 대상 진료·보험·비자 제도 불합리성 개선방안, 정부 및 지자체 간 협업체계 정비 방안 및 의료관광 연계형 콘텐츠 개발 방안, 외국인환자 유치업 관리체계 강화 및 불법 브로커 근절 방안 등을 논의
- 현장 방문 사진



○ 현장 방문 추진(2차)

- 방문일자: 2025. 10. 14.(화)
- 방문장소: 하이디하우스, 서울한방진흥센터
- 참석위원
 - 김혜영 위원장, 아이수루 부위원장, 고광민 위원, 김길영 위원, 김용호 위원, 김태수 위원, 김형재 위원, 옥재은 위원, 황철규 위원
- 면담자
 - 하이디하우스: 유기주 대표
 - 서울한방진흥센터: 김호산 센터장
- 주요내용
 - 서울시 의료관광 관련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업계 애로사항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하이디하우스와 서울한방진흥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시찰 및 정책간담회 진행
 - 하이디하우스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 차원의 저위험 회복서비스와 웰니스 시술 전반의 안전가이드라인 마련 및 서울형 웰니스 인증 체계 마련 방안 등을 논의
 - 서울한방진흥센터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방·웰니스 분야 의료관광 콘텐츠 확충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
- 현장 방문 사진



○ 정책토론회 개최

- 일 시: 2025. 11. 5.(수) 14:00
-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
- 토론회명: 서울시 의료관광, 무엇이 걸림돌인가? – 법, 제도 마련
을 중심으로 –

– 주요내용

- 서울시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는 한주형 교수(한국관광학회) 및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서울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서울시 의료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서울시 의료관광 제도개선 과제’라는 발제로 ▶의료관광 현 주소,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추진경과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의료관광 비자절차 간소화, ▶불법 유치행위 시장교란 방지 방안,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기한 연장, ▶해외시장 광고 · 홍보네트워크 구축방안 마련 등에 관한 토론을 진행

※ 관련 보도자료 별첨 참조

– 정책토론회 사진



-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3차)
 - 일 시: 2025. 12. 22.(월) 11:00
 -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 안 건: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의결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의결
 -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 위원별 마무리 말씀, 위원장 총평 및 당부말씀

□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후 계획

-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는 6개월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 의료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현장 중심 정책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함.
- 이에 회의 및 정책토론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확인된 비자 절차 간소화, 불법 브로커 근절,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연장, 해외 홍보·마케팅 네트워크 강화, 통역 서비스 개선 등 핵심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논의와 제도개선 촉구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임.

붙임 1. 보도자료 5부.

2. 업무보고자료 1부.
3. 건의안 1부.

【붙임 1】 - 보도자료

2025. 7. 21.(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특별시의회
Seoul Special Assembly Council



김혜영 위원장(광진4, 국민의힘)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의료관광특위 위원장	김혜영	2180-8446

사진 없음 사진 있음 ■ 매수: 4매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위 위원장에 김혜영 의원 선임 등 공식 출범

- 김혜영 위원장, “서울시 의료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적극 모색”

-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는 2025년 7월 18일(금),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을 선임하고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 의료관광은 최첨단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와 관광·문화·휴양 등을 결합해 제공하는 고부가가치 미래 전략 산업으로, 서울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한류를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 경쟁력이 싱가포르, 태국 등에 비해 뒤쳐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이에 따라 의료관광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의료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민간 협력 확대, 의료관광 거버

년스 구축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 김혜영 위원장은 “서울은 외국인 환자의 약 80%가 집중되는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그에 걸맞은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의료관광 특별위원회가 의료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논의의 중심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관광특위는 김혜영 위원장(광진4)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고광민(서초3), 김길영(강남6), 김용호(용산1), 김태수(성북4), 김형재(강남2), 옥재은(중구2), 이상욱(비례), 이종배(비례), 이종환(강북1), 황철규(성동4),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박강산(비례), 아이수루(비례), 우형찬(양천3), 한신(성북1) 의원이 참여해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마쳤다.
- 의료관광 특별위원회는 연내 2차례의 서울의료관광 산업현장 시찰에 나서 의료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해 제도 개선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성 명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대 서울시의원 · 동아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졸업(관광경영학 박사) · (현)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현)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 (현)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문화관광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현)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시의회 약자와의 동행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 부회장 · (전)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전)서울특별시교육청 학부모지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전)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 (전)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위원 · (전)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2025. 9. 11.(목)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김혜영 위원장(광진4, 국민의힘)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의료관광특위 위원장	김혜영	2180-8446

사진 없음 사진 있음 ■ 매수: 5매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위 부위원장 선임·업무보고로 본격 활동 개시!

- 부위원장에 이종배(국민의힘) ·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 의원 선임
- 김혜영 위원장, 현장 방문을 통해 의료관광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

-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 국민의힘)는 지난 9월 10일(수),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 부위원장에는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과 아이수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선임되었으며, 위원장과 함께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끌게 된다.
- 이날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임과 함께 서울시 관광체육국의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관광자원의 결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 관련 산업 간 연계 강화

등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 김혜영 위원장은 “서울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의료 인프라와 다양한 관광 매력을 갖춘 도시”라며 “의료관광이 서울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했으며, 의료관광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이 글로벌 의료관광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9월, 10월 2차례 현장방문으로 의료관광 산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 한편 의료관광특별위원회는 김혜영 위원장(광진4), 이종배 부위원장(비례), 아이수루 부위원장(비례)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고광민(서초3), 김길영(강남6), 김용호(용산1), 김태수(성북4), 김형재(강남2), 옥재은(중구2), 이상욱(비례), 이종환(강북1), 황철규(성동4),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박강산(비례), 우형찬(양천3), 한신(성북1) 의원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성 명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1대 서울시의원 · 동아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졸업(관광경영학 박사) · (현)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현)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 (현)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문화관광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현)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시의회 약자와의 동행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 부회장 · (전)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전)서울특별시교육청 학부모지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전)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 (전)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위원 · (전)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2025. 10. 16.(목)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김혜영 위원장(광진4, 국민의힘)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의료관광특위 위원장	김혜영	2180-8446

사진 없음 사진 있음 ■ 매수: 6매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위, 현장방문 통해 업계 애로사항 청취

- 김혜영 위원장,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추진할 것!

-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광진4, 국민의힘)은 지난 1차 현장 방문(9월 30일)에 이어 2차 현장 방문(10월 14일)을 통해 의료관광 산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 먼저 1차 현장 방문은 외국인 환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국어 진료 지원 등이 가능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국제진료센터와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관광 안내와 통역 지원 등의 시스템을 갖춘 강남메디컬투어 센터,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우수 병원으로 선정된 뷰성형외과를 방문해서 의료관광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 이어 지난 10월 14일 실시한 2차 현장 방문은 웰니스(Wellness)와 건강증진, 힐링 복합시설로서 도심의료관광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하이디하우스와 최근 K-Pop 데몬헌터스 등의 컨텐츠를 통해 외국인들의 한방진료에 관심이 높아진 점을 반영하여 서울한방진흥센터를 방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 방문 기관의 관계자들은 ▲의료관광 비자 심사 기준·절차의 불명확성과 불허 사유 미통지 문제 ▲국내외 불법 브로커의 과다수수료 요구 문제 ▲해외 체류 환자의 사전상담 및 사후관리를 가로막는 원격진료 관련 문제 ▲의료관광 통역·코디네이터 인력 부족 및 낮은 처우 문제 ▲외국인 대상 온·오프라인 의료광고의 과도한 제한 문제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시했다.
- 이에 김혜영 위원장은 “서울 의료관광은 융복합산업이자 고부가 가치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최근 두 번의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문제들은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것으로, 여전히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위는 의료관광 업계의 의견을 공식 의 제로 수렴하기 위해 11월 5일(수) 오후 2시, ‘서울시 의료관광, 무엇이 걸림돌인가’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열 예정”이라며, “이날 토론회에서 정리된 개선안을 11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으로 연결하고, 정부 건의안까지 패키지로 제출하는 등 의료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의회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한편 지난 7월 출범한 의료관광특별위원회는 김혜영 위원장(광진4), 이종배 부위원장(비례), 아이수루 부위원장(비례)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고광민(서초3), 김길영(강남6), 김용호(용산1), 김태수(성북4), 김형재(강남2), 옥재은(중구2), 이상욱(비례), 이종환(강북1), 황철규(성동4)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박강산(비례), 우형찬(양천3), 한신(성북1) 의원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 명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1대 서울시의원· 동아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졸업(관광경영학 박사)· (현)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현)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현)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문화관광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현)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서울시의회 약자와의 동행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 부회장· (전)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서울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서울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전)서울특별시교육청 학부모지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전)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전)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전)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2025. 11. 10.(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진 없음 사진 있음 ■ 매수: 4매

시의원	김혜영	2180-8446
의원연구실	602호	2180-8447
정책지원관	조지훈	2180-5851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장, “‘서울시 의료관광 무엇이 걸림돌인가?’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 서울 의료관광 성장 가로막는 광고·비자 규제 손질, 부가세 환급 연장, 불법 브로커 및 AI 허위광고 차단 방안 논의

-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가 5일 ‘서울시 의료관광, 무엇이 걸림돌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급성장한 의료관광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 지난 7월 출범한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고광민(서초3), 김길영(강남6), 김용호(용산1), 김태수(성북4), 김형재(강남2), 옥재은(중구2), 이상욱·이종배(비례), 이종환(강북1), 황철규(성동4)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강산(비례), 아이수루(비례), 우형찬(양천3), 한신(성북1) 의원까지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날 토론회의 주관자였던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장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서울은 외국인 환자의 다수가 찾는 글로벌 핵심지”라며 “세계적 의료 인프라와 한류 관광·문화 자원을 결합하면 더 큰 도약이 가능하다. 이에 상응하는 제도·정책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논의된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신속히 전달하고, 시 차원의 현안도 실무적으로

챙겨 가시적 성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한주형 한국관광학회 교수는 서울시 의료관광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의료관광 비자 절차 간소화 ▲불법 유치행위 근절과 시장 교란 방지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해외 마케팅·홍보 네트워크 강화를 제안하며 “공식 유입경로를 넓히고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의료관광 생태계 강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이후 패널토론에는 김진국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장, 최순우 뷰성형외과 대표원장, 이수택 서울관광재단 관광산업본부장, 김영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국제협력팀장, 강경아 제인디엠씨코리아 총괄이사, 이재화 서울시 관광산업과장이 참여했다.
- 김진국 회장은 서울형 의료관광 추진협의체의 상설 운영과 데이터·인증·교육·보험을 포괄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최순우 대표원장은 서울 의료관광 산업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현행 사무장 병원 구조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어 이수택 본부장은 의료법 제56조에 따른 광고 규제로 국내 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 지자체의 합법적 홍보가 제약받고 있다며 국제 경쟁에 맞춘 합리적 완화를 주문했다. 다음으로 김영진 국제협력팀장은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통역 아르바이트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강경아 총괄 이사는 외국인 중증환자들의 입출국 편의 개선을 위해 공항과 출입국사무소에 중증환자전용 패스트트랙 창구를 개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마지막으로 이재화 과장은 서울이 중증치료 역량에서도 경쟁력을 갖췄지만 개별 의료기관의 홍보 제약으로 수요 확대가 더디다며 관련 규제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 발제와 토론이 끝나고 현장 방청객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현재 의료관광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대거 질문자로 나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한 질문자는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제도가 지난 10년간 민간 투자와 함께 1,200여 개 의료기관의 참여로 정착됐고, 가

격 투명성과 신뢰를 높여 재방문과 추천으로 이어졌다며 정부 계획대로 올해 12월에 일몰될 경우 불법 브로커 확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 가치세 환급 실적의 약 90% 이상이 서울에서 발생한다며 사실상 서울 의료관광 생태계를 떠받치는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의료관광특별위원회 및 서울시 차원의 지지를 요청했다.

- 현행 비자 발급 제도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도 제기됐다. 앞서 김영진 팀장이 제안한 외국인 학생 대상 통역 아르바이트 도입에 대해 한 질문자는 D-2(유학생)·D-4(어학연수) 비자는 학교 동의와 행정절차로 고용까지 2~3주가 걸릴 뿐 아니라 통역·번역 업무가 금지돼 실제 현장 투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 그리고 또 다른 참석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 통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거소증 여부가 아닌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외국인 환자를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 중인 사람, F-4 비자를 가진 재외동포 등이 통계에서 제외되어 산업 육성과 정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관에서 실시간으로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환자의 정의를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추가적으로 질문자로 나선 미국 국적의 의료관광 업계 관계자는 불법 브로커가 산업 신뢰를 훼손하고 합법 사업자들의 경쟁을 왜곡한다며 특별수사·전담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하고 10년간 수집한 증거를 제공하겠다는 의사 를 밝혔다. 그는 최근 환자 후기와 전후 사진을 사칭한 AI 딥페이크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서울관광재단과 강남 메디컬투어센터 등 공공기관이 다국어 공식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공공 웹사이트 중심의 신뢰 정보 생태계 구축이 허위정보 확산을 차단하고 서울의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줄 기회라는 설명이다.
-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김혜영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위는 오늘 토론회가 토론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고, 정부와 국회가 관련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서 오늘 제안된

내용들이 페이퍼로만 머물지 않고 법령과 예산, 현장의 매뉴얼로 구현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말했다.

성명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1대 서울시의원· 동아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졸업(관광경영학 박사)· (현)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현)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문화관광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현)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서울시의회 약자와의 동행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 부회장· (전)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서울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서울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전)서울특별시교육청 학부모지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전)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전)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전)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붙임 2】 - 업무보고자료



의 료 관 광
특 별 위 원 회

SEUL MY SOUL

주 요 업 무 보 고

2025. 9.

관 광 체 육 국
(관 광 산업과)

1 의료관광 다각적 협력체계 구축

① 서울의료관광 활성화 추진협의회 구성 · 운영

□ 구성 개요

- 임 기: 2025. 5. 21. ~ 2027. 5. 20. <2년> ※ 1회 연임 가능
- 구 성: 총 15명(당연직 2, 위촉직 13)
 - 당연직(2): 관광체육국장, 시민건강국장
 - 위촉직(13): 의료관광 관련 단체·기관·학계 및 홍보·마케팅 전문가 등
- 운영 방식 : 연 2회 정기회의 개최 ※ 필요시 수시 개최
※ 2025년 추진협의회 개최 : '25. 6. 16.(월) ~ 20.(금), 발전방향 의견수렴(서면)

□ 2025년 주요 논의 내용

- 의료관광 바이어와 셀러 요구 반영한 성과 중심 매칭시스템 운영
 - 바이어와 셀러 간 니즈(Needs) 기반 상담체계 구축
 - 동남아, 중동, CIS 등 신규 타깃국 확대 및 국가별 진료과목 특화 마케팅 강화
- 외국인 의료관광객 이용편의 증진 추진
 - 의료관광 통합 플랫폼 개선(예약-상담-사후관리 연계)
 - 의료관광 비자제도 개선(G-1, C-3-3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등)
- 의료관광 협력기관 역량 강화 및 지원체계 확대
 - 통역사 배정 신청일 완화 요청(現 배정일 7일 전 신청→3일 전 신청)
 - 신규 유치 에이전시 대상 교육 및 실무 지원 강화
- 웰니스·한방·비의료 콘텐츠 결합 등 의료관광 상품 개발 지속
 - 의료+웰니스+관광 연계형 콘텐츠 구성 강조
 - 투어패스, 공연, 명소, 한방체험 포함된 체류형 상품 제안

□ 향후 계획

- 2차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협의회 개최 : 11월 중

② 서울의료관광 파트너스데이 2025 개최

□ 행사 개요

- 일 시: '25. 11월 말
- 장 소: 이랜드크루즈(예정)
- 참석대상: 서울의료관광협력기관 180개사
 - 의료기관(132), 유치기관(30), 관광서비스분야(18)
- 내 용: 특별강연, 시장표창 수여식, 미니트래블마트, 만찬 등
※ 특별강연은 협력기관에 유익하고 필요한 내용으로 설계 예정

< 2025 서울의료관광 종합설명회 개최 결과>

- ▶ 일시/장소: '25. 3. 17.(월) 14:00~16:00 / 서울관광플라자 다목적홀
- ▶ 참 석: 협력기관 88개사 139명
- ▶ 주요내용: 2024년 추진실적 및 2025년도 사업계획 안내 등

□ 세부 일정(안)

구분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1부	15:00~15:05	개회 및 내빈 소개	
	15:05~15:10	관광체육국장 환영사	
	15:10~15:15	서울시장 표창 수여(2점)	
	15:15~15:55	강연	
2부	17:00~17:10	네트워킹 설명 및 휴식	
	17:10~18:40	미니 트래블마트	
	18:40~18:50	휴식 및 좌석 세팅	
3부	18:50~20:00	만찬 및 자유 네트워킹(공연 등)	

2

의료관광 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수용태세 강화

① 서울의료관광센터 운영

□ 운영 개요

- 센터 위치: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85(31빌딩), 1층
- 운영 시간: 9:00~18:00 ※ 주말, 법정공휴일 휴무
- 운영인력/제공언어: 3명/영어, 중국어, 일본어
- 운영주체: 서울시·서울관광재단



□ 추진 내용

- 기존 운영했던 센터를 ‘서울의료관광센터’로 개편하여 지원기능 다양화
 - 협력기관 홍보존 및 의료 체험존 구성을 통한 홍보마케팅 활성화
 - ▶ 협력기관별 SNS 콘텐츠 제작·홍보(영·중·일 웹3종 및 소셜미디어 4종 운영)
- 의료관광객 대상 서울 의료·웰니스 관광정보 제공 및 불편사항 접수
 - 서울시 지원사업 안내(1,217건), 의료관광정보 안내(574건), 의료정책 안내(16건), 의료불만 및 신고(10건), 기타(106건)
- 협력기관(180개소) 대상 사업 지원 및 의견 청취
 - 통역코디네이터 연계·지원(48건), 공항 픽업 및 센딩 서비스 지원(368건)
 - 협력기관(180개소) 애로사항 등 의견사항 청취·반영
 - ▶ 통역코디 신청서류 간소화·지원금 확대, 픽업센딩 신청 플랫폼 업그레이드 및 지원 서비스업체 다양화(인터내셔널택시→ 카카오택시, 아임택시, 인터내셔널택시 등)



② 의료관광 컨시어지서비스 지원

□ 서울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 연계·지원

- 운영현황: 제5기 통역코디네이터 10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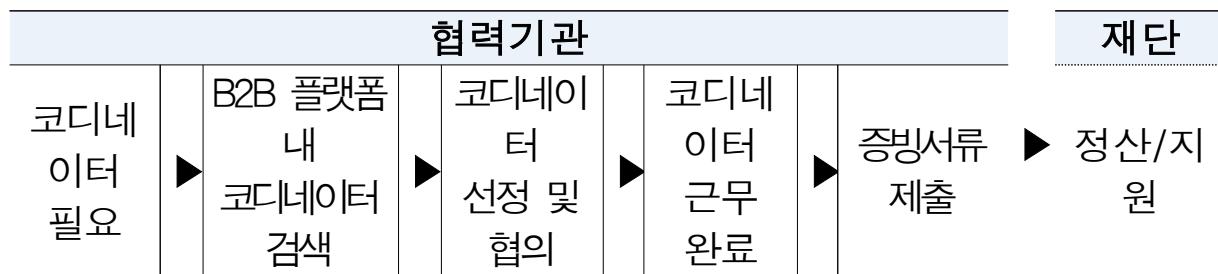
총 계	영 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기 타
108	19	23	24	22	20

* 기타(20): 베트남어(6), 러시아어(6), 아랍어(5), 인도네시아어(1), 캄보디아어(1), 태국어(1)

- 대상: 서울의료관광 협력기관 180개소

- 지원규모: 통역 코디네이터 사용금액의 50% 지원(건별 최대 20만원),
각 기관별 연 300만원 한도 지급

- 지원절차: B2B 플랫폼을 통한 신청 및 정산



□ 의료관광객 공항 픽업 및 센딩 서비스 제공

- 대상: 서울의료관광 협력기관(180개소)

○ 내용

- 의료관광객 대상 공항에서 의료기관 및 투숙호텔까지 픽업·샌딩
- 외국어 구사 가능한 운전기사 및 공항 내 피켓 환대서비스 제공

- 지원규모: 1대당 전체 사용금액의 50%지원(최대 5만원),
각 기관별 연 300만원 한도

○ 지원절차



③ 서울의료관광객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추진 내용

- 조사 대상: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서울의료 관광객 600명
 - 대상 국가: 미국,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중동국가, 몽골, 러시아 등
- 대상 기관: 서울의료관광 협력기관(의료기관) 등
- 조사 방법: 면접조사 방식
- 세부 내용
 - 의료관광객 의료서비스 등 이용실태 조사
 - 의료관광객 서울의료관광 협력기관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
 - 설문 참여 의료기관 관계자 대상 인터뷰 등
 -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 제안
- 활용 방안
 - 서비스 품질의 객관적인 측정과 외국인환자의 만족·불만족 요인 분석·환류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전략 수립에 활용

□ 추진 계획

- 질문 문항 설계 등 : 7월 ~ 8월
- 실태 및 만족도조사 : 9월 ~ 10월
- 보고서 발간 : 11월

3 전략적 홍보·마케팅을 통해 서울의료관광 글로벌 위상 제고

①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 개최

□ 행사 개요

- 행 사 명: 2025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
 - 2025 Seoul International Travel Mart for Medical Tourism
- 기간/장소: 2025.9.2.(화)~9.3.(수)/ 콘래드 서울 호텔
- 주최/주관: 서울특별시/서울관광재단
- 참석 규모: 국내·외 바이어 및 셀러 370여개사(해외 70, 국내 300)
- 행사내용: 개막식, B2B트래블마트, 설명회, 팸투어, 홍보부스 운영 등



□ 세부 프로그램

9. 1.(월)	9. 2.(화)	9. 3.(수)
사전 팸투어 (09:00~19:00)	개막식 (10:00~10:30)	
	홍보부스 운영 (10:00~18:00)	
	특별강연(오찬) (11:30~13:30)	설명회(오찬) (11:30~13:30)
	B2B 트래블마트(오프라인) (10:00~18:00)	
	네트워킹의 밤 (18:00~)	

□ 추진 계획

- 국내외 참가자 모집 : 6 ~ 8월
-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 개최 : 9. 2.(화) ~ 9. 3.(수)

② 해외 현지 건강상담회 및 의료관광설명회 개최

□ 행사 개요

- 기 간: '25. 6월, 11월
- 장 소: 베트남 호치민(6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11월)
- 참 석: 국내 의료진 및 현지 환자, 관광업계, 미디어
- 내 용: 건강상담회, B2B상담회, 의료관광설명회, 체험형 이벤트 등

□ 주요성과(베트남)

- 베트남 현지 환자 234명 대상 건강상담회 운영
 - 1차 중증(107명), 2차 경증(127명)으로 나누어 각각의 별도 부스 구성 · 운영
- 의료관광업계 국내외 B2B트래블마트 개최로 190건 비즈니스 상담
 - 총 51개사 185명 참석(서울 13개사 30명, 베트남 39개사 155명)
- 서울의료관광설명회 개최를 통해 서울의료관광 인프라 등 소개
 - 의료관광 업계, 미디어, 바이어 등 총 120여 명 참여



<건강상담회>



<B2B트래블마트>



<서울의료관광설명회>

□ 향후 계획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설명회 : 11월

4 의료관광 규제(의료광고 · 원격진료) 개선 건의

□ 추진 경위

- 의료관광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25. 2. 13.)
 - 총 7명 참석(의료기관 4, 유치기관 2, 중앙정부 1)
 - 의료관광 광고, 비자, 원격진료 등 의료관광 관련 규제에 대한 논의
- 중앙정부(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 건의('25. 2. 19.)
 - 의료관광 국내 광고, 원격진료, 비자제도 완화 등 건의
- 의료관광 업계 2차 간담회 개최('25. 3. 18.)
 - 업계 5명 참석(의료기관 3, 유치기관 2), 업계 애로사항 및 동향 청취

① 국내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 완화

□ 추진배경

-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 등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가 금지
-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를 통해 7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 7개 구역 :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제주도지정면세점, 국제선 공항, 무역항, 관광특구, 의료관광특구
 - 법적 인증 사항이 아니면 광고할 수 없는 등 광고 내용의 제한이 과다

□ 건의사항

- 정부 인증을 받은 우수 유치의료기관은 장소 제한 없이 국내 의료광고 허용
 -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의료광고에 대한 특례) 제1항 개정 필요
 - ※ 우수 유치의료기관 : 법무부 인증 외국인환자 우수유치의료기관(15개소),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유치의료기관 평가인증 병원(39개소)

- 권위 있는 국제 평가기관의 인증에 대해서는 광고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 심의 기준 개정

-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2항 14호 개정하여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경우 광고 허용

□ 기대효과

-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질환에 대한 의료광고가 가능하여,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환자 선택권 확대
-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활성화로 의료관광 산업 성장

② 원격진료에 대한 규제 개선

□ 추진배경

- 외국인환자의 79%가 비대면진료 의향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현지 의사를 직접 섭외해야 해서 이용을 저조
※ 출처 : 외국인 환자 한국 의료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조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24.3월)
- 의료관광 후 귀국한 외국인환자가 추가적인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상 대리처방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처방 불가

□ 건의사항

- 해외 거주 환자가 한국 의료진과 직접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의료해외진출법」 제16조(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 제1항 개정 필요
- 귀국한 외국인환자 중 중증환자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대리처방 허용
-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개정 필요

□ 기대효과

- 외국인환자가 입국 전부터 맞춤형 치료 플랜을 수립할 수 있어 치료 효율성 증대 및 K-메디컬 신뢰도 증가
- 암, 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환자의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 가능

5 '26년 서울의료관광 활성화 추진계획

- '프리미엄 의료관광 허브도시, 서울' 구현으로 의료관광객 150만 명 달성
 - (브랜딩 구축) 치유와 나눔을 상징하는 프리미엄 의료관광 브랜드 구축 신규
 - 세계 최고 의술과 우수한 관광 인프라의 강점을 살린 서울의료관광 BI 개발
 - 국가별 수요·소비 패턴을 반영한 타깃 국가 특화 마케팅 전략 수립
 - ▶ 중동: 의료송출시스템(자국의 환자가 해외진료 시 국비 지원)을 갖춘 중동국가의 보건부 및 정부기관과 G2G협약을 체결하여 의료관광객 유치 기반 확보
 - ▶ 일본: 20~30대 여성 타깃 웰니스·뷰티 상품 결합, 현지 박람회 참가 및 홍보
 - (콘텐츠 확대) 의료관광객 체험 콘텐츠 제공 확대로 장기 체류 유도
 - 의료와 한방, 웰니스, 뷰티 자원을 연계한 프리미엄 콘텐츠 개발·홍보
 - MICE, K-POP, 미식관광 등과 의료를 연계한 복합 체류 프로그램 개발·홍보
 - 의료관광 친화 숙박시설 운영 및 숙박비 지원을 통한 장기체류 및 재방문 유도
 - (인프라 강화) 의료관광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신뢰도 확보 신규
 - 입국에서 출국까지 전 과정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관광 통합시스템 구축
 - ▶ 의료 정보, 상담 및 지원, 관광 연계, 이용 편의 기능,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제공
 - 안심케어 보험 도입 및 법률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의료관광 안심시스템 구축
 - (민·관 협력) 민간·지역·산업 간 지속가능한 의료관광 협력체계 구축
 - 협력기관 간 상품기반 네트워킹 모델 구축을 통한 민간 주도형 협력체계 정착
 - 서울과 지방의 의료·관광 자원 상호 연계 및 공동 마케팅으로 지역상생 기반 마련
 - 중동·CIS 등 주요 신흥시장 대상 B2B상담회 확대로 해외시장 다변화

 서울의료관광 BI(예시)	 민간뷰티 연계 체험 프로그램	 '24년 올란비타르 서울의료건강상담회
--	--	---

【붙임 3】 - 건의안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세계 의료관광 시장은 2032년 약 498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이다.

특히 서울을 방문하는 의료관광객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일반 관광객의 2배가 넘는 약 840만원에 달하며, 이는 숙박, 식음료, 쇼핑 등 도시 전반의 소비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

서울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기술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2024년 기준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의 85.4%인 약 100만명이 서울을 방문할 정도로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핵심 거점이다. 의료관광 활성화는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관광객 3천만명 시대(서울관광 비전 3·3·7·7)’를 앞당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자 국가 경쟁력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다.

그러나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주요 경쟁국들이 국가 차원의 전담 기구 설립, 원스톱 비자 시스템 구축, 과격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전 세계 의료관광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처 간 칸막이 행정과 낡은 규제,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서울이 의료관광 선도 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현재 의료관광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4가지 규제 및 제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정부를 상대로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다.

첫째,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의료관광 비자(C-3-3, G-1-10) 제도의 경직 문제다.

경쟁국들은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통해 신청부터 발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로 이원화된 절차, 불명확한 심사 기준, 비자 거부 사유 비공개 등으로 인해 의료관광객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자의 보호자 및 동반자에 대한 까다로운 자격 요건 또한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 브로커와 사무장 병원 문제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다.

우리나라의 현행 불법 브로커 신고 시스템은 실명 제보를 기반으로 하여 실효성이 낮고,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사후관리가 부재하다. 말레이시아와 같이 익명 신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의료 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비의료인의 병원 개설(사무장 병원)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도 필요하다.

셋째, 글로벌 홍보를 가로막는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에 대한 과도한 규제 문제다. 싱가포르의 경우 의료광고를 ‘공공의료 정보제공’으로 분류하여 해외 홍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의료법」 상 외국인 환자 유치 목적의 의료광고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일부 특례를 통해 공항·항만·면세점 등 특정 장소에 한해서는 외국어 광고가 허용되고 있지만, 온라인·해외시장 전반을 고려하면 여전히 제약이 큰 것이 사실이다. 적어도 국가와 지자체가 인증한 우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해외 홍보의 길을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의 일몰 우려 문제다.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가 올해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해당 환급 실적의 91%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만큼, 제도 종료 시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한 타격은 고스란히 서울 의료관광 업계가 떠안게 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의료관광 산업을 우리나라의 대표적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장에서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법적·제도적 걸림돌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정부를 향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정부는 의료관광 비자(C-3-3, G-1-10)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 기준의 투명성 제고 및 비자 발급 거부 사유를 공개해야 하며, 환자 동반자 범위 확대 등 비자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하라.

둘째, 정부는 건전한 의료관광 시장 조성을 위해 익명 신고제 도입 등 불법 브로커 근절 대책을 강화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하여 글로벌 홍보 경쟁력을 확보하라.

셋째,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라.

넷째,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는 비의료인의 병원 개설(사무장 병원)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라.

다섯째, 정부는 부처별로 분산된 의료관광 정책을 단일화된 창구로 통합 관리하고, 비자·의료·관광·숙박·교통을 아우르는 ‘원스톱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의료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라.

2025년 12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